# 여수 '이순신 광장' 조성 마찰

## 일부 주민들 "제1상권 황폐화 사업 철회해야"

## 市 "새 랜드마크 건립 위해 반드시 필요" 강행

여수시 중앙동 일대에 들어설 이순신 광장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여수시는 최근 6천600㎡(2천평) 규모의 조성 계획을 확정하고 토지 45필지 가운데 20필지, 영업권 74건 가운데 54건에 대한 보상을 마쳤다.

그러나 광장 조성지역 일부 주민들이 원도심 제 1 상권이 황폐화돼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며 사업 철회를 주장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원도심 상권 지키기 중앙동 철거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이순신 광장 조성사업은 원도심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대 상권을 황폐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철거대상 지역은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식당과 수산물 도소매점이 밀집해 있는 지역 명소로 광장 조성은 원도심 경제를 망치는 결과를 빚게 된다"며 "고작 6천600㎡의 광장 조성을 위해 500억원을 투자하는 것은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여수시는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 건립을 위해서도 이순신 광장 조성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강행의지를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보상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순천서도 한라봉 생산됩니다"

'한라봉'이 순천서도 생산되고 있다. 순천시 낙안면 차상봉씨는 5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재배에 성공, '순천미인 한라봉'이라는 브랜드로 대형 마트와 낙안정보마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 광양문화원 숙원 '독립원사' 확보

### 구 광양읍사무소 자리 이전

### 휴식공간 등 조성 6월 개관

광양문화원이 구 광양읍사무소 자리로 이전한다. 〈사진〉

광양시는 최근 광양읍사무소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구 읍사무소 본관을 리모델링하고 본관 뒤 조립식 건물과 담장을 철거, 소공원을 조성하는 등 이 일대에 문화·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본관 건물(585㎡)에 향토문화연구소와 향토자료실, 유물 및 민속자료 전시실, 문화사랑방, 다목적 소회의실 등을 갖추고 오는 6월말 문화원을 개관할 예정이다.

시는 유물전시관에 장도·궁시 등 무형 문화재 작품과 사라져가는 지역의 생활유품 등을 비롯해 시민들이 소장한 유물을 기증받아 전시할 계획이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 기름유출 신고 40대 '올해의 명예 감시원'

### 여수해경 선정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훈상)가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앞장서 온 '올해의 명예 해양환경 감시원'을 선정했다.

여수해경은 지난해 8월 여수시 낙포동 앞 해상에서 원유 운반선의 기름 유출 사실을 신고한 박모(47)씨를 최우수자로 선정했다.

최우수자로 선정되면 남해지방 해양경찰청장상과 20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명예 해양환경 감시원 제도는 지난 1998년에 도입됐으며 현재 전남 동부지역에는 190여명이 가입, 해양 환경 보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폐기물 불법 해양배출 행위에 대한 신고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순천지청, 무고·위증 사범 '철퇴'

### 작년 7~12월까지 집중 단속

### 10명 구속 40명 불구속 기소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이동호)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무고 및 위증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50명을 적발해 이중 10명을 구속기소하고 4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순천지청은 무고 사범 증가로 억울한 피해자 양산 및 수사기관의 수사력 낭비 등 사회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단속을 벌였다.

유형별로는 ▲채무면탈 및 채권회수 목적 17명(47.2%) ▲이익취득목적 8명 ▲감정·원한에 따른 제3자 음해 목적 7명 ▲형사책임회피 목적 4명 등으로 나타났다.

순천지청은 앞으로도 사법질서를 위협하는 무고·위증 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악의적인 음해성 무고·위증사범은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 청정 여수 수산물 위판량 전년비 4% 늘어

여수지역 수산물 위판량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여수지역 수산물 위판량은 5만4천133t(위판액 1천458억원)으로 2006년 대비 4%가 늘어났다.

어종별로는 건멸치가 8천116t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기 5천773t, 갈치 5천495t 순으로 집계됐다.

위판량이 증가한 것은 어장정화와 연근해어선 구조조정 등 그동안 추진해 온 어족자원 육성 사업이 성과를 거둔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 순천대 공대 광양 이전 반발 확산

### 농민·예술인 단체 "시민 배신행위 즉각 중단하라"

### 노관규 순천시장 "광양만권 통합 양해각서 체결을"

국립 순천대 공대의 광양 이전 추진에 대해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8일 순천시 공무원노조가 반대 성명을 낸 데 이어 농민단체와 예술인 단체 등이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순천대 공대 이전 문제가 지역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순천대 주변 곳곳에는 대학 이전을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일부 주민들은 순천대가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포스코 본사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22일 국립 순천대 공대의 광양 이전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대가 대학 발전에 열정을 다했던 동문, 시민과 단 한 번의 협의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총장과 공대의 몇몇 교수들이 주도해 공대를 광양으로 이전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 시장은 "순천대 장만채 총장이 공대를 광양제철소 인근으로 이전할 경우 운영비와 연구비 지원 및 졸업생 취업보장을 포스코 측과 협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포스코는 오늘 공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줬다"며 "따라서 이전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시장은 또 "순천대가 공대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다면 가칭 '순천대학교 사랑모음 통장'이라도 발행해 십시일반으로 시민들의 정성을 모으겠다"면서 "광양만권 발전을 위해 순천, 여수, 광양 통합 양해각서를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농민단체 회원 10여 명은 21일 오전 순천대를 항의방문해 "지역민들의 사랑으로 발전을 거듭해 온 순천대가 공대를 광양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순천문화원과 예술인총연합회도 성명을 내고 "순천대가 시민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공대 이전 계획을 수립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만채 순천대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